

무용극으로, 서커스로...동심과 함께 떠나는 상상 여행

‘탈출·해피해프닝’...18일부터 26일까지 ACC어린이극장

신체 움직임 중심 예술,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쉽고 흥미롭게 전달 놀이·예술로 확장되는 일상의 사소한 순간들, 색다른 즐거움 선사

탈을 벗고 나를 마주하는 순간부터, 일상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순간까지. 몸의 움직임으로 상상과 감각을 깨우는 공연이 어린이 관객을 찾아온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4월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 관객을 위한 공연을 연이어 선보인다. 무용극과 서커스라는 서로 다른 장르를 통해 색다른 즐거움을 전하는 무대를 마련했다.

먼저 오는 18-19일 무대에 오르는 어린이 무용극 ‘탈출’은 대구시립무용단과 현대무용단 고블린 파티가 협업한 작품이다.

어린이의 시선에서 ‘탈’과 ‘탈출’을 연결해, 내면의 감정을 상징하는 탈을 매개로 자기 표현과 자유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다.

이 작품은 대구시립무용단 정지공연으로 기획된 무용극으로, 고블린 파티가 안무와 움직임 설계를 맡았다.

기존 어린이 무용극 창작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무 구성에 역동적인 현대무용의 움직임을 더해, 어린이 관객도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퍼커션과 가야금 라이브 연주가 더해져 무대의 생동감을 높였으며, 어린이를 위한 무용극 레퍼토리로 확장 가능성도 함께 제시된 작품이다.

이어 25-26일에는 창작 서커스 단체 공간 서커스살롱의 ‘해피 해프닝’이 관객을 찾는다. 네 명의 서커스 요정이 등장해 일상 속 익숙한 사물과 행동을 서커스로 변주하는 공연으로, ‘임동하고 불편한 일상탐구 서커스’라는 컨셉 아래 전개된다.

컵을 옮기는 동작이나 외출 위 퍼포먼스처럼 평범한 움직임이 공중에서의 균형과 긴장, 즉흥적인 상황으로 이어지며 색다른 장면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장면들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사물



어린이무용극 ‘탈출’(왼쪽)과 창작 서커스 ‘해피 해프닝’



<ACC 재단 제공>

과 행동을 새로운 시선으로 풀어낸 것으로, 관객이 각자의 상상과 해석을 더하며 공연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어린이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약 50분 내외의 공연을 통해 일상의 사소한 순간이 놀이와 예술로 확장되는 과정을 유쾌하게 보여준다.

이번에 마련된 공연들은 무용과 서커스라는 신체 움직임 중심의 예술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로 다른 장르의 공연을 연이어 선보이며 어린이 관객이 다양한 신체 기반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점에서도 의미를 더한다.

김명규 ACC재단 사장은 “아이들이 다양한

공연 장르를 친근하게 경험하며 상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가족이 함께 즐기며 일상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공연 모두 4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예매는 ACC재단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최명진 기자

서사를 비껴간 흔적들, 흐르고 머물다 흐르다

강동호 ‘비껴간 서사’展...내달 3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일상의 익숙한 풍경이 회화적 변주를 통해 낯설게 다가온다.

광주예술의전당은 오는 5월3일까지 강동호 작가 개인전 ‘비껴간 서사’를 개최한다.

작가는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되는 완결된 이야기보다, 회화적 장면이 형성되는 방식과 그 장면을 바라보는 시선의 구조에 주목해왔다.

그는 사건의 중심을 비껴간 주변 움직임과 이미지 사이 형성되는 틈과 간극을 회화로 끌어들이는다.

작가의 회화는 서로 다른 시간과 시선, 감각의 층위가 교차하며 끊임없이 유동하는 역동적인 ‘장(Field)’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전시의 중심축인 ‘세 가지 변주 드로잉’ 연작은 작가의 세계관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다섯 개 패널로 나뉜 화면은 각각 독립된

구조를 지니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돼 분절과 연속이 동시에 일어나는 독특한 흐름을 형성한다. 각 패널 사이 물리적 간격은 이미지의 흐름이 잠시 끊기고 다시 이어지는 리듬을 만들어내며 관람자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작품 속 질은 녹색 위로 휘감기듯 지나가는 곡선과 아래로 흘러내리는 물감의 흔적들은 중력의 방향을 드러내며, 정지된 상태에 머물지 않는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특히 빛과 캔버스가 맞닿기 전의 머뭇거림과 이후 이어지는 속도감 있는 운동감이 화면 전체에 배어들며, 변주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점이 작품의 특징이다.

한편 이번 공모에 선정된 강동호 작가는 조선대에서 조각설치미디어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2025 김해 문화재단 웰컴제티즌시, 2017년 국립아시아



‘세’

문화전당 창작제작센터 오픈랩 프로그램 등에 참여했으며 현재까지 5회의 개인전 및 다수의 국내외 단체전에 참여하며 작품 활동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최명진 기자

초롱에 깃든 기억과 위로

김영주 개인전, 28일까지 화해갤러리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 전통의 정서와 느낌의 가치를 되짚는 전시가 마련됐다.

김영주 작가의 세 번째 개인전 ‘초롱 빛에 꿈이 머물다’가 오는 28일까지 화해갤러리에서 열린다.

작가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가까이하며 자랐지만 형편상 정식 미술 교육을 받지 못했다. 이후 염주동 성당 벽화 작업을 계기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으며, 정해영 작가의 화실에서 작업을 이어가며 50대에 작가로 데뷔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반달이와 초롱을 주요 소재로 한 작품들이 선보인다.

작가는 전통적 이미지와 색감을 바탕으로, 빠름을 추구하는 시대와 대비되는 ‘느림의 미학’을 화면에 담아냈다.

반달이는 개인의 기억과 꿈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으로, 초롱은 삶과 꿈을 비추는 따뜻한 매개로 표현된다.

작품의 형식 또한 눈길을 끈다. 캔버스 위에 구겨진 한지를 붙여 질감을 만든 뒤




‘빛의 환생’

채색하는 방식으로, 요철이 살아 있는 표면 위에 색을 더해 독특한 화면을 구성한다.

이러한 표현은 삶의 굴곡과 시간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 속에서도 드러나는 아름다움을 강조한다.

김영주 작가는 “빠르고 복잡한 시대 속에서 전통의 색감과 정서를 통해 평안과 위로를 전하고 싶다”며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이 자신의 기억과 꿈을 떠올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꽃피는 봄에도, 어르신들의 밥상에 여전히 찬바람만 불니다.


텅 빈 냉장고, 다 쉬어버린 김치, 말라붙은 라면 국물.

월 2만원, 정기후원으로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봄을 선물해 주세요.

#사랑의 도시락 배달

#전국 26개소 무료급식소 운영

#독거노인 기초생활 개선지원



QR 인식

ARS
무기명 후원

060-708-1004 (1만원)

후원문의

1811-1004